

광주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300명 고용 창출 효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광주광역시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조성한다고 10일 밝혔다.

산업부, 7번째 혁신타운 조성 계획 발표 30여곳 입주 예상...부가가치 유발 기대

했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전주기적 성장에 필요한 창업, 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네트워킹 공간 구축 등을 지원하는 통합 거점이다. 2019년부터 전국 6개 지역에 걸쳐 조성 중으로, 광주시는 이번에 7번째로 조성이 결정됐다.

광주역 인근 북구 중흥동 일대에 들어설 광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올해부터 3년간 총 280억원(국비 140억원, 지방비 140억원)이 투입돼 지상 4층, 연면적 900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올해 실시설계에 돌입해 2023년에 착공하고 2024년 준공이 목표다.

1층은 전시관, 상설 판매장, 공동물류창고, 2·3층은 기업 입주공간과 지원 공간, 4층은 강의실, 강당 등이 위치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지역 여건을 감안해 '사회적경제 3대 특화전략'으로 그린 뉴딜, 도시재생 융합, 문화컨텐츠를 선정할 바 있다.

광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 수요조사 결과 225개 기업 중 213개 기업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중 137개 기업이 입주 의사를 밝혔다.

광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준공되면 30여개 사회적경제 기업이 입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세균 전 총리는 축하영상에서 "순천 시민과 함께 다시 순천의 꿈을 향해 가는 달려가는 데 허석 후보의 빛나는 성취가 함께 하길 바란다"고 응원을 보냈다.

허석 후보는 "코로나 때문에 지난 4년 어려움이 많았지만, 오직 시민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면서 많은 씨앗을 뿌렸다"면서 "이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재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전남 8대공약·현안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노력 문금주 부지사, 원희룡 위원장·정운천 부위원장·박주선 위원장 면담

전남도는 문금주 행정부지사가 7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원희룡 기획위원장에 윤석열 당선인의 전남 공약을 비롯해 반드시 추진이 필요한 지역 현안 등을 국정과제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금주 부지사는 이날 원희룡 위원장에게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전남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및 고효율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전남 8대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전남이 꼭 추진해야 할 핵심 지역현안 등에 대해서도 국정과제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위원장은 "대통령 당선인의 전남 8대 공약은 전남에 있어야 하고, 필요한 사업이며, 추가 건의한 과제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며 "그동안 발전에 소외된 지역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부지사는 이어 정운천 균형특위 부위원장과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현안사업에 대해 국정과제 반영을 요청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허석 순천시장 예비후보 개소식 성황 지지자 2000여명 방문...신정훈·서동용 의원 등 참석 격려



허석 순천시장 예비후보 개소식 성황. 지지자 2000여명 방문...신정훈·서동용 의원 등 참석 격려

재선에 나선 허석 순천시장 예비후보가 9일 오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구례곡성) 등이 참석해 축하와 응원을 보내는 등 지지자 2000여명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

정세균 전 총리는 축하영상에서 "순천 시민과 함께 다시 순천의 꿈을 향해 가는 달려가는 데 허석 후보의 빛나는 성취가 함께 하길 바란다"고 응원을 보냈다.

허석 후보는 "코로나 때문에 지난 4년 어려움이 많았지만, 오직 시민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면서 많은 씨앗을 뿌렸다"면서 "이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재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전남도, 출생아부터 만1세까지 영아수당 30만원으로 확대 지급

전남도는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0~1세 영아에게 지급하던 가정양육수당을 올해부터 영아수당으로 바꾸고 금액도 늘려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을 통합한 것이다.

보육료 바우처는 0세 반 영아에 약 50만 원, 양육수당은 0세 20만 원, 1세 15만 원을 지급했다. 새롭게 지급하는 영아수당은 0세부터 1세까지 각 30만 원씩이다.

영아수당은 부모의 선택에 따라 가정양육 시 현금으로,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0~1세 영유아 부모의 경우 가정양육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으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보다 지원금이 적었다. 영아수당 도입으로 오는 2025년까지 가정양육 지원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해 지원한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뽕히고 깔리고" 광주 제1수원지 두꺼비 집단 이동길 손본다

1년에 두 차례, 산과 수원지 오가는 두꺼비 떼 수천 마리 달해

무등산국립공원이 무등산과 물가를 오가는 수천 마리 두꺼비 개체를 보호하기 위해 등산로와 도로시설을 대대적으로 손질 예정이다.

10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이하 무등산국립공원)에 따르면 이 달 중 광주 동구 윤림동 제1수원지와 주변 도로·탐방로를 중심으로 두꺼비 이동길 점검·보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무등산국립공원 제1수원지 주변에선 매년 두 차례 수천 마리 두꺼비 집단 이동이 관찰되고 있다.

3월엔 성체 두꺼비가 산란을 위해 산에서 물가인 수원지로 내려온다. 5월 초~중순은 알에서 깨어난 두꺼비 새끼들이 수원지에서 산으로 이동하는 시기다.

그러나 산과 수원지 사이에 탐방로와 도로가 난 탓에 두꺼비 개체들이 이동중 해마다 탐방객 발에 밟히거나 로드킬을 당해 죽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새끼 두꺼비의 경우 크기가 성인 손톱 만큼 작기 때문에 식별이 어려워 밟힐 위험이 크다.

지난달엔 수원지 인근 도로에서 로드킬로 인해 죽은 두꺼비 성체 4마리가 발견됐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실제로 이보다 더 많은 두꺼비 개체가 이동 과정에서 죽고 있을 것이라고 무등산국립공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무등산국립공원은 오는 5월 두꺼비 대 이동을 앞두고 기존 방치된 시설물을 정

비하고 은신처를 만들 예정이다.

무등산국립공원은 지난 2014년에 두꺼비 밟힘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16m 길이의 탐방로에 징검다리를 설치했다. 그러나 2년 전 폭우로 징검다리가 토사로 뒤덮여 제 기능을 못하게 되자, 흙을 걷어내고 돌을 재배치하는 등 시설물을 보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인근 도로 곳곳에 '두꺼비 집단 이동'을 알리는 안내 현수막과 감속 표지판도 설치되고, 수원지 안에 두꺼비 은신처도 마련될 예정이다.

무등산국립공원 관계자는 "증심사 인근 제1수원지는 두꺼비 산란에 있어 최적의 장소"라며 "이동기간 동안 모니터링과 탐방객 안내를 강화해 두꺼비들의 안전한 이동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한정승인 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22 느단 10042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이계춘 (591228-1656940)
최 후 주 소 : 전남 함평군 엄다면 수산길 48-36(화양리)

위 망 이계춘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2년 4월 11일

공 고 인 : 이효범,
주 소 : 전남 함평군 함평읍 영수길 117-2(내교리)
한정승인수리일 : 2022년 4월 6일
공 고 기 간 : 2022. 4. 11 ~ 2022. 6. 11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원보험료 납부 104,062원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소득구분	보험료부담액	급여액	비율
5분위 고소득층	240,833원	125,531원	1.1배
4분위	125,531원	79,147원	1.7배
3분위	79,147원	48,103원	2.1배
2분위	48,103원	26,697원	2.7배
1분위 저소득층	26,697원	-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공로연락처 12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한국연세인생재단
Yonsei Pension Fund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많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이후에
생활 속의 위대할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합니다.

국민이여, 여기서 지친 슬퍼하지 마세요.